

濟州道 固有文化의 保存 및 宣揚方案에 관한 研究

— 地方文化 藝術의 活性化 方案 —

梁淳秘*·梁鎮健**

目 次	
一. 序 言	
二. 本 論	
1. 지방문화 예술의 활동공간 문제	3. 지방문화 예술의 재정문제
2. 지방문화 예술의 주제문제	4.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문제
	5. 지방문화 예술의 특이성 문제
	三. 結 論

一. 序 言

최근 정부는 문화장달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지방문화 육성 등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국민적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결실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일반적으로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방안¹⁾은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1) 모든 예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접근시키고자 하는 욕구.

1) 애초 本稿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상호 의존적이며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長
**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時間講師

- (2) 향토 예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희망.
- (3) 전통 예술을 보존하려는 결의.
- (4) 지역사회 예술활동을 성장, 발전시키려는 욕구.

더우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 예술을 문화적 자원(cultural resources)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의 관광 매력 증진을 위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요인이 상호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은 대체로 위와 같은 문제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첫째, 위의 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시설)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불가피하게도 다른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二. 本 論

1. 지방문화 예술의 활동공간 문제

모든 문화예술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활동의 공간을 우리는 제2의 공간(second space)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면서 예술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활동 공간의 확보는 지방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공간 특히 예술건물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 (1) 예술이 지향하는 형태에 대한 고려.
- (2) 그리고 나서 예술이 관중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한계내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
- (3) 그 다음 단계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음.(내포된 모든 사회·교육적 문제점도 함께 생각할 것.)²⁾

이같은 논의는 비단 전문적인 예술센터에 국한된 지적이긴 하지만, 문예회관 등의 공간건립에 따

2) John Pick, Arts Administration, (E.& F.N.1980), p.112.

른 운용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회관이나 학생회관 혹은 여성회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제반 문화행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은 당초 예술목적이 지정되어 건축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공간 특히 건물에 대한 불만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예술가들이나 뜻 있는 많은 인사들이 공간행정에 대한 불만이 일반화되어 있다. 건물들을 유지하는 데 많은 경비가 투입되므로 건물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이용을 제약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문예회관 등의 예술공간의 관리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우기 대중의 요구를 적절하게 예측하여 공간을 배려하거나 예술표현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여 어떤 예술 공간은 버리고 어떤 공간은 취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예술행정(arts administration)적 배려가 전무한 실정에서 예술공간의 관리는 자칫 일개 관공서 건물관리 수준으로 전락되기 십상이다.³⁾ 따라서 종합문예회관을 재단법인화하여 기획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턱 낮은 활동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예술과 스포츠를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양자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예술센터들이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그들의 활동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당초에 스포츠를 위해 마련된 야외공간에서 예술작품의 전시라든가 무용, 연주공연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근래에는 한라문화제와 같은 지방문화축제가 벌어져 예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스포츠도 아닌 새로운 형식의 활동양식(예를 들자면 한라문화제의 조랑말 경주대회 같은 것)이 지역사회에 깊이 침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왜냐하면 이 같은 조류가 건물의 설계라든가 예산 배정, 미디어의 관심도 그리고 여러 이익단체들이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영국의 지방 예술협회 RAA(Regional Arts Association) 같은데서는 예술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방책으로서 전문적인 예술센터 같은 것보다는 다목적 예술공간을 많이 짓고 있다. 물론 다목적 예술공간이 전문적인 예술의 공연·전시 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이점은 명백하여 한 건물에서 지방의 행사, 발레, 연극, 강습회, 연주회, 전시회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민들에게 행사 가능범위를 넓혀주고 다양한 예술형태를 실험해 볼 수 있게하여 지방민들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주고 있다.⁴⁾

사실 예술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서울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빈약한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개편되면서 예술은 도

3) 제주도의 경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의 적절한 예술행정적 배려가 고려된다면 훌륭한 예술공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현재 동화관들이 예술공간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즉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 일반 건물관리 혹은 그 이하의 상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다.

4) John Pick, op. cit., p. 115

회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즉 예술의 서울(중앙) 중심주의를 낳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지방민들의 문화 향수권은 소외당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지나치게 도식화시키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에서는 예술이 그들 화제의 테마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생활주변의 보다 시급한 문제들에 급급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예술이 공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에서 지방문화 예술 공간의 건립 및 운영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건립예정의 종합문화회관 등에 대한 다목적의 예술행정적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어떤 부류의 예술형식은 지정된 예술센터 같은 곳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손쉬운 장소가 더 요망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는 상당한 관심을 지닌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제한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해 한라문화제 등의 지방문화축제 중에는 대부분의 형식이 그러한 제한된 공간보다 확장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 확장된 공간이란 다름아닌 자유로운 연회공간의 필요를 의미한다.

애초 연회공간의 중심개념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인데 이 말은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어우러짐’을 뜻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명내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질박한 삶과 바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연회공간의 박탈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대체로 지방문화 행사가 지방 기층민들의 현장적 삶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면 그 행사는 단순히 ‘바라보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한 공간 마련 즉 연회공간에 대한 배려는 종합문화회관 등의 구체적 공간의 마련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연회공간을 통한 공동체 의식이란 일종의 동질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며 나 개인보다 이웃이나 우리라는 것이 앞선 집단개념으로서 여럿이 삶을 함께 하는 협동체의 질서로서 형성되는 의식이다. 오늘날의 삭막한 획일화의 정보관리 사회에서도 과연 이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단위 같은 소단위 공동체만 만발할 뿐 이 작은 공동체마저도 폐쇄된 자기 세계에 머물러 전체적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특히 바우징어(H. Bausinger) 같은 이는 이제 동질적 사회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까지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이 여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은 바로 연회공간이라 하였다. 놀이와 축제의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게 되고 그 의식이 전개되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아이덴티티를 얻을 수가 있다⁵⁾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라문화제나 기타의 지방 예술행사는 한편의 놀이마당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야제나 혹은 개개의 행사종목 등이 지방민들과 유리된 공간에서 치뤄지지 말고 지나가던

5) H. Bausinger: Formen der Volkspoesie, (Berlin 1968), pp. 41~42.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박수와 환호 그리고 어깨춤을 보낼 수 있는 장소 배려가 요망된다는 말이다.

영국의 예를 보면 연극같은 것이 어느 곳에서나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연되고 주민들 또한 어느 곳에서나 ‘함께 어우러’ 진다. 노상에서의 공연은 물론이고 점심식사 자리, 간이주점, 학교, 공장, 운동장에서 공연되며 심지어는 유람선상에서도, 교회, 지하철 안, 공원 어디에서도 벌어진다. 웃지 못할 일은 알렌 우드 같은 이의 초현실주의 작품이 콜체스터에 있는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입욕자들을 대상으로 전시도 되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디에서든 연희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는 예증이다.

문화회관 같은 특정의 예술센터도 그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무관심한 시민이나 참여의 기회가 소외된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의 연희공간으로의 선정 문제도 비례하여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과 긍지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의 지역분산 개최도 예술공간 배정의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경우 문화예술행사의 지역분산 개최는 제주도 전역의 관광사업 진흥에도 큰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독특한 지방문화 예술행사의 지역분산 개최가 요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 한 시즌 동안 해수욕장에서 오래전 오케스트라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고전음악의 걸작품과 호화스런 팝뮤직을 연주한 결과 관객 12,000여 명을 끌어 모았으며 1인당 10달러씩의 입장 수입을 올렸었는데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⁶⁾

제주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함덕 해수욕장 등에 시민노래대회 같은 일상적이며 오락적인 여가가 아닌 예술행사가 베풀어질 수 있다면 적어도 예술공간의 확대라는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직 ‘예술’이라고 각인된 우아한 배에만 안주할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술가나 시민 모두에게 불이익의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방문화 예술의 주체문제

문화행사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관의 지나친 개입이다. 문화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는 측은 예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주로 문제시함으로써 보다 예술의 본질적 역할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문화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6) 유럽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는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니스와 지중해의 여타 휴양도시에서는 <시즌>이 1년내내 거의 지속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짧고 한정적이었던 아비뇽의 축제가 오랫동안 안 열리고 축제전 축제, 축제후 축제 등 여러 축제가 열린다. 휴가철 휴양지는 일년내내 제철을 만나 북적대고 있으며 전천후 페스티벌로 치달고 있다해도 좋을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행사를 지역분산 개최함으로써 제주도 전역의 거리축제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Ibid., p.121.

국수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소위 소외효과(Verfremdungseffek)를 낳는다는 것이다. 애초 예술에 대한 갈망이란 유기적인 것이 기계적인 것에 대하여 개성이 익명성에 대하여, 내면성이 공허함에 대하여 우위를 지킬 것이라는 일종의 자발성에의 갈구와 다름이 아닌데 정부의 개입은 예술의 이러한 자발성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주장은 사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술활동에 대한 관의 관여는 항상 있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관의 예술에 대한 의미있는 관여가 오직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공기금의 할당 등에 대단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보조금 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직접적 관여의 첫째는 점열이다. 다음은 건물 등에 대한 공간의 허가이고 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 세번째로 꼽히는데 이러한 관의 관여는 때로 그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드 시대 영국의 전문예술을 개화시키는 자양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관의 관여라 함은 관이 할 수 있는 지도적 역할 즉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동등한 자격으로의 참여를 지칭하고 있음은 불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예술 행사의 지방자치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안에 따르자면 문화행사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통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모든 권력이 지방관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8년의 영국의 보수주의적 셀즈돈(Selston) 그룹은 「예술 정책, 세금 절감 A Policy for the Arts; Just Cut Taxes」에서 예술정책에서의 모든 관료적 정책을 배제하고 자유방임으로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관·민의 쌍방간의 협조체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에 형성된 국가적 관행을 하루 사이에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예술의 문제는 행정적 수술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0년내지 2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민간주도형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국가권력 분배 추세가 지방자치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술행정의 지방분권화⁸⁾ 역시 당연한 추세라고 여겨진다. 문화예술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민간주도의 문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문제를 둘러싼 지방민들의 의식공유일텐데 특히 다양한 통로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대체로 문화예술 행사의 주체를 민간주도로 이해하게 될 때 적어도 다음 4 가지 부류로 그 주

7) Ibid, p.66. 이같은 견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조급함과 접근 가능성에 대한 혼선이다.

8) 예술에서의 지방분권화 모델은 별로 성과있는 것이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John Elsom은 「The Arts Change and Choice」(1978)에서 예술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체를 도식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 (1) 순수하게 예술지향적인 사람.
- (2) 특정한 때에만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3)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4) 예술에 관해 잠재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참여하기도 하는 사람.

이 도식화는 예술 관객의 형태 분류도 될 수 있는데 적어도 민간주도라고 했을 때는 이 4가지 부류를 모두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특히 지방문화 예술 행사에서는 (2)와 (3)의 부류가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방문화 예술이라는 특징이 ‘일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때’ 이라하면 문화의 달 같은 때에만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의 태도인데 대부분의 (1)과 관련되어 민간주도의 예술행사 등에 진정한 참여자라고 자처하는 특정 그룹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들만의 관습과 그들만을 위한 행정절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 소수의 그룹만이 예술작품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소수의 그룹만이 예술작품을 수용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처신이 민간주도형의 예술행정에 확산이 된다면 애초 공동체의 어우러짐을 목표로 한 지방문화 예술행사가 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됨을 중시해야 한다.

애초 지방예술 즉 향토예술 (community arts) 이란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중을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대중은 계층적으로 또는 교육수준으로 해서 전통적 고급예술과는 단절되어 있는 다수를 일컫는다. 따라서 지방문화 예술 행사의 민간주도의 문제는 소수의 예술 애호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론한 4 부류와 그 이외의 예술행사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된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모두의 문제’라는 뜻은 (4)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4)는 다름아닌 청년층의 예술참여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 예술행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청년층 즉 학생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도가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주도의 논의에서 학생의 참여 활동, 관심 등은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어쩌면 예술행사의 지방분권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선결과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예술을 즐기는 공동체적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금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 영화관람 대신에 지방예술 행사 이라하면 지방 연극, 전시회, 연주회 등에 관심을 집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방문화 예술행사의 민간주도 문제에 또 다른 기여가 될 것이다.

3. 지방문화 예술의 재정문제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를 논의함에 있어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술행사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결손을 줄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존립을 위해 돈이 있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술활동의 질과 양을 높이거나 늘리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돈을 필요로 한다.

예술계에서는 재원의 한계가 그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리하여 예술가들은 정부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지원자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에 극력 반대를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새롭고 보다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예술활동과 판매촉진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⁹⁾

이러한 어려움은 지방문화 행사에는 더욱 더 심한데 지방문화 행사의 재정적 결핍은 존립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한라문화제와 같은 지방문화 행사에 만원사례를 이루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하나의 행사종목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관람객이 들어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것은 유료입장이건 무료입장이건 경우는 놀랍게도 거의 대동소이하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행사진행의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지방문화 행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의 문제로 집약된다. 제작비 등의 상승과 지원금의 감소라는 양면으로부터의 압력은 지방문화 예술행사의 활력과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역설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흔히 예산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행정 및 제작비를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항상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문제와 성실성의 손상을 수반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방문화예술 행정조직의 구조적 대응과 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주의가 요망된다.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전략으로서 최근에 들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대기업과 재단의 기부금에 의한 후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문화예술 기관의 수입은 결코 경상비 충당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시대의 정신적 가치창조를 통하여 점점 개별화되고 있는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아울러 예술의 학구적 자유와 창조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후원이 절대

9) M.P.Mokwa, W.M.Dawson, E.A.Prieve ed., Marketing the Arts, (PREAGER, 1980), p.8.

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이며 현실이다.

세계적인 대표적 기업연합이 문예지원협의체로서 록펠러가 주창해 67년 창립한 BCA(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는 82년 현재 149개사가 회원이며 연 1백만 달러 이상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회원사도 20개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CA는 예술센터나 문화 센터를 건립함은 물론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교향악단, 극단, 미술관, 각종 문예단체들을 지원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72년 정부와 민간합동의 의무성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현재 2천7백억원의 기금을 갖고 국내의 전시·공연행사 등은 물론 외국인의 일본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업연합의 문예지원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지만 83년 3월 한국문예진흥원이 주선, 기업과 개인들을 회원으로 한국 문화예술 진흥후원협의회를 발족시켜 기업연합 형태의 문예활동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후원체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아직 기업들이 문예지원 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탓도 큰데 그러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의 이미지 부각과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예술 연대론에 따르면 그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기업은 필연적으로 예술 활동 재원의 출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형편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의 스포츠 등에는 기업들이 재정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반해 문예활동 등에는 거의 지원의 손길이 없다.

몇몇 기업들이 이를테면 대우 그룹의 합창단, 혹은 학술총서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체이스 맨하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술작품을 구입·전시·보관을 하기도 하고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한 예술지원을 매년 증액시키기도 한다. 세라믹 회사인 클러사의 경우 예술가들이 원하는 시설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통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상품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예술을 후원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이같은 예술지원은 대도시 대기업만이 아니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같은 후원체제는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원체제 구축은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의 2가지 방향에서 이 안을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세계적인 대표적 기업연합의 문예지원 협의체로는 미국의 BCA 및 예술기업협의회(ABC) 예술진흥재단(NEA) 영국의 예술후원기업협의회(ABSА) 등이 있다. 엑슨사가 주도해 73년에 창설한 ABC(Arts and Business Council)는 기업대표와 예술기관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회원이 1백 30명이고 BCA와 비슷한 활동을 한다.

- (1) 관광사업과 관련된 도내, 도외, 재외기업과의 연계.
- (2) 관광사업과 관련이 없는 도내, 도외, 재외기업과의 연계.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크게 보아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은 관광과 관련이 깊은 업체들인데 적어도 관광사업을 목표로 제주도를 겨냥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제주도의 지방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그네들의 관광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닌 일종의 문화적, 관광적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그 지원체제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행정 당국 등은 이들에 대해 권장조항을 의무화해서라도 지원체제에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제주도의 토지 및 기타의 관광사업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잠식당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바 그네들이 얻고 있는 이익의 현지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원체제 동참은 마땅히 권장되어야 한다.

관광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과의 연계 문제는 제주도 출신 기업인들에 대해 지원체제의 동참을 요청하는 일인데 특히 재일교포 거류민단들과의 협조체제 요청은 바람직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 초·중등학교의 건립에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해온 세력이 그들인바 예술지원이라는 것 역시 교육지원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 그네들의 협조 창구는 가장 바람직스런 지원체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지역 유지 그리고 언급한 기업인들이 중심으로 '제주도 예술문화 후원회' (가칭) 라는 자생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긴밀한 협조와 유대 속에서 재정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기업의 재정보조가 비교적 체제성을 갖게 되며 기금조성의 문제에도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재정보조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정지원이나 재정보조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시급하다. 다시말해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고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나 재정보조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 말은 예술이 그동안 믿음과 희망과 자선이라고 하는 그릇되고 위험한 세계에 너무 오래 안주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기도 하다. 예술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려 올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기부금을 제공해서 결손을 메워줄 것이라는 자선에의 기대, 그 가운데 믿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희망은 거의 맹목적인 것이고 자선은 결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관객이나 청중을 끌어들이고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내부적인 노력 또한 경주되어야 한다.¹¹⁾ 사실 재정을 정부나 기업의 지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런 일이 못된다. 문화예술 행

11) 제주도의 경우 문예진흥 기금의 10억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긴하나 애초 이러한 출발은 내부적인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한 시도는 없었다.

사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특히 특별수입원의 모색이 요망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정적 딜레머의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딜레머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통로의 개척이 시급하다.

우선 예술단체들에게는 대부분 자체 전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있어 전물임대가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 문예회관 등에 전시회나 공연이 없는 동안 강당 등에 외부회의나 행사 등을 적극 유치 임대하여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다. 영국의 머메이드 극장 (Mermaid Theatre) 의 예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서울 등의 유명 극단이나 연주회 등의 순회공연을 적극 유치·관리하게 되면 좋은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밖에 제주도의 관광상품으로서 제주도 특유의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육성하는 일인데 일례를 들자면 영국 관광협회 BTA의 통계에 따르면 연 3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런던의 극장을 찾고 약 1백만명이 지방극장을 찾고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외국 관광객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 즉 관광상품의 하나로서 '불거리'를 특유하게 고집하게 되면 수입원의 하나가 될 것이라 본다. 이를테면 제주도내 관광회사나 업체 혹은 대한항공 등의 기업 등과 연계를 하여 한라문화제 행사 참관 티켓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반 비용을 할인해 준다든가 제주시립합주단의 연주회 티켓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 비교적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2년째 뮤지컬 캣츠(cats)가 통련하고 있는데 그것의 배경에는 캣츠의 티켓을 사면 호텔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자사직원이나 가족들이 티켓을 사면 대폭 서비스를 해주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행사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특히 기금조성이 요청되는데 기금조성을 위해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새로 짓는 예술회관의 <벽돌 한 장 사기>, 극장의 좌석을 <사서, 자기 명패를 붙이기> 등의 '찬조' 형식을 동원하거나 혹은 회원권 제도를 만들거나 한다.¹²⁾ 도내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여 제주도 민요테이프를 정선해서 만들어 팔거나 관광엽서, 슬라이드, 책 등의 판매를 통해서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정당국이나 언론매체가 중재하여 복권 발행 등을 통해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예술단체들이 복권발행으로 재정에 큰 덕을 보았는데 관광객이나 도민을 상대로 향토문화제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운용하게 되면 좋은 수입원이 되리라 믿는다.

4.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문제

문화예술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역사적으로 문화

12) M.P.Mokwa, W.M.Dawson, E.A.Prieve ed., op. cit., p.140.

예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¹³⁾

- (1) 전문적인 문화예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
- (2) 이른바 문화예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3) 전문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 (4) 비평에 의해 승인받은 사람.
- (5) 자기 자신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자처하는 사람.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등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대체로 문화예술단체와 같은 전문단체나 예술집단에 가입코자 할 때 널리 통용되는 자격 기준은 (3)번의 케이스인데 그러나 제주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이나 혹은 (4)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드문 편이며 누구든지 자신이 예술인의 반열에 들기 원하는 사람에게 개방된 문호인 (5)의 케이스가 주목을 이루는 형편이다. 이러한 형편은 부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관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드물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드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네들에 대한 지원이나 성원이 저조하거나 때로 아예 끊긴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든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은 그들 행위의 성격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단순성을 보인다. 이런 경우 행정적 배려가 더욱 요망되는데 즉 예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 예술의 특별한 필요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가 부재할 시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자칫 행정의 동원기구 역할 정도로 전락하거나 혹은 '시끄러운 군더더기' 정도로 이해할 위험성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신문사 등에서 주최하는 제주도 미술대전 같은 행사는 전문 예술인 배출이라는 측면에서나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나 의의 깊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망사항이라면 신춘문예 등의 코너 등도 신설하고 신문 연재소설 등에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더 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야말로 문화정책의 성공적 계기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비교적 드문 상황에서는 전문인 양성의 여건 고려와 함께 앞에서 언급했던 예술인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5)번의 케이스에 대한 세심한 주의 또한 배려가 요망된다. 특히 지방문화 예술의 향토문화적 특성은 이들에 의해 대부분이 논의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네들의 활동은 독특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예총산하의 예술문화 단체 구성원들은

13) Ibid., p. 78.

이러한 점에서 독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같은 인식하에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신참자들과 앞으로 종사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립합주단 등의 예를 보자면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언급한 (5)번의 케이스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이유에서라기 보다 (5)번의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원이 낮고 공식기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활동에 대한 임금체계가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직업란에 직업으로 기입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 논리는 단순한데 즉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행정적 접근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바 가장 고귀한 목표를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성취시키는 과정이 문화예술행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행정이란 전문인에 관한 행정적 배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의 문화예술적 충동에 대한 배려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논리는 시정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5)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땅히 긍정적이고 진지한 배려가 요망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이 확보되게 되고 결국 자율적인 능력을 획득케 될 것이다. 지방문화 예술의 존재 의의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하고 외면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방의 문화예술가들의 창의와 불굴의 노력은 우리 모두의 생활을 보다 가치있고 품위 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이다. 지방문화 예술은 분명 지방민들의 비전을 보다 높은 능력과 보다 세련된 감수성으로 고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문화 예술의 경우에는 전문예술인들의 힘과 아울러 아마추어들의 예술적 충동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지방문화예술 단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5. 지방문화 예술의 특이성 문제

일반적으로 한 향토의 특이성을 지니고 형성된 문화를 향토문화라고 할 때 향토문화는 그 향토의 자연적 여건에서 생활하는데 알맞도록 오랜 생활경험에서 형성된 지혜의 소산으로서 그 향토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토문화 속에는 그 향토민들의 이상과 생활현실, 예술과 신앙, 세시풍속과 관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향토민들의 소박하고 솔직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말이다. 향토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향토문화는 향토의 자연과 역사와 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성적이며 소박하고 전통문화의 가장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토문화는 바로 그 민족문화의 핵심적인 원형이며 그 민족문화를 이해하려면 향토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문화 예술은 향토문화를 발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케네스 로빈슨(Kenneth Robinson)은 지방예술은 기능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

라 활동의 기본 자세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규정된다¹⁴⁾고 하였다.

다시말해 지방문화 예술의 임무는 정 통예술의 확산에도 있지만 우선은 향토문화에 바탕을 둔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결여하게 되면 지방문화 예술이 서울의 그 아류나 대치물로 전락하게 되며 결국 '동네 신부감, 값 만나가는' 식의 자기 고장의 문화예술을 꾸대접하는 사례를 낳게 된다.¹⁵⁾ 결국 지방의 공연·전시회 등은 서울의 아류이며 그래서 볼 가치가 없고 서울에서 온 '초대손님' 등을 선호하게 되는 식의 영양실조의 논리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방문화 예술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제주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근본적인 믿음을 하나로 만들며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문화 예술은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향토 기층민들의 삶의 역사에 대한 정리다. 왜냐하면 지방문화 예술이 향토문화를 전제로 할 때 그 향토문화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토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토민들의 생활역사 즉 향토사는 지방문화 예술의 가장 지방적인 내용을 알차게 해주는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최근 제주도 연구회가 향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화예술계에도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과 행정적 배려가 요망된다. 특히 제주신문사 등이 그러한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홍보하고 현오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사례는 참으로 뜻깊게 주목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밖에 제주대학교의 탐라문화연구소 등의 연구업적 또한 기층민들의 삶의 문제를 밝히는데 있어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제주대 교수들에 의해 간행된 '제주문화의 재조명' 등은 소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주문화방송이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을 번역 간행한 것도 향토사 연구에 소중한 업적이다. 이 모든 논의들이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준거 마련으로서 이행될 때 기여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향토사 등의 정리와 함께 시급한 것이 지방문화 예술의 그 지방적인 내용을 다루는 향토문화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여기서 뜻하는 지원이란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향토문화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 등이 포함된다. 일례를 들자면 언론사가 주최하는 가을맞이 가곡의 밤은 거의가 서울에서 온 '초대 손님'에 의해 치루어지는데 도내 문화예술인이나 도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공간이 과감하게 배려될 때 지방문화 예술은 비록 걸음마일지는 모르나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향토문화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강좌나 방송출연 및 신문 등의 원고 게재 등등에 향토문화인들이 적극적으로 배려될 때 기대될 수 있는 사기진작은 예상보다 클 것이다.

14) Ibid., p. 74.

15) 제주신문 사설 (1986.10.20).

제주도 문화상의 시상금도 현재의 배액 정도로 배려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문화 예술활동에 공헌하고 있는 <제주도>지는 격월간 정도로 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문화 예술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향토문화제 즉 한라문화제를 적극 육성하는 일이 다음 선결과제다. 한라문화제는 25회라는 연륜을 쌓았는 만큼 도민의 문화축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도민들의 동참의식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이 지적은 조심스러운 것인데 25회 한라문화제의 예를 보자면 <화반놀이>, <전통 초가집 짓기>, 혹은 <연물놀이>, <여호네 흙질놀이> 등등의 제주도 특유의 놀이마당이 펼쳐졌는데 그러나 이 놀이들은 다만 ‘한정된 몇 사람이 보는’ 것으로 그쳐버렸다. 특히 <연물놀이>는 제주적 사물놀이로서 북과 설쇠, 대영, 장귀 등의 무악기를 중심으로 춤과 노래가 곁들여져 흥을 돋군 이른바 구경꾼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놀이였는데 다만 애초 살아 뒹뒹하는 신명이 박제화된 놀이로 그쳐버렸던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놀이가 이루어진 관계로 일차적으로 도민들이 동참을 못했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놀이마저도 연회자와 구경꾼을 기계적으로 구분해버림으로써 도민들은 철저하게 동참이 필요되는 놀이에 철저하게 동참이 거부되었던 것이다.¹⁶⁾

이런 추세는 향토문화제의 개인주의화·지식주의화·특수층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제주도라는 공간과 제주도민의 삶을 유기적으로, 체험적으로, 창조적으로 연계시키는 대안으로서 한라문화제는 이렇게 동참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거듭되고 필경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자족하게 될 것이다.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 화목과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대안으로서, 공공적인 질서와 미풍양속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통을 현대적인 양식 가운데 생산적으로 되살리는 대안으로서, 지역문화의 개성과 긍지와 가치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대안으로서 도민들이 ‘함께 하는’ 한라문화제가 요망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일을 위해 한라문화제 행사시에는 놀이마당을 특정한 옥내공간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도민들이 출입이 빈번하고 놀이가 가능한 주변의 모든 옥외공간을 행사공연장 즉 놀이마당으로 응용함이 바람직스럽다. <해녀춤>, <물허벅춤>, <결궁>, <농악> 등은 아마도 가장 제주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거리축제 종목들인데 신명을 인위적으로 박제화시키지 말고 인간 모두에 내재해 있는 살아 뒹뒹하는 자기표현 능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때 아마도 제주도판 놀이마당의 그 값어치가 출중한 ‘함께 하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지방문화 예술로서 한라문화제가 제주도적인 특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즉 특이성은 제행사 종목의 내용에도 관련이 되긴하나 제주도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라는 측면에서 더욱 요구가 된다는 말이다.

16) 한라문화제에 관해 수십명과 인터뷰한 결과 그중 H병원의 L의사는 진해의 군항제가 동참공간이 비교적 많은데 비해 한라문화제는 전혀 동참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촌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마도 지방문화 예술의 지방적인 내용은 그 지방의 학교와 지방문화 단체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예술 단체 육성은 단지 지방문화예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제주시립합주단이 제대로 육성되게 되면 제주시립교향악단이 탄생되게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원이 약속되게 되면 가장 지방적이며 또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깥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예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남의 일만은 아니다. 즉 학교와 문화단체로 하여금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갖도록 권장하고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면 소기의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이 지적은 아울러 지방문화 예술의 골자인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학교교육은 그 지방 지방의 독특한 문화·예술 등은 체재 놓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역사나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방단위의 교육위원회 등과 연계작업을 펼쳐나가면 상호 양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주도의 경우 도교육위원회가 교육 지표로 내걸고 있는 이상이 이른바 ‘삼무정신’인데 삼무정신이란 애초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미의식에서 자생 발전시켜온 동기적 현상이 아니라 결과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 지방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가 차체에 있어야 될 줄 믿는다.¹⁷⁾

더욱더 소망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지방문화 예술의 본격적인 향토문화와의 연계작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문화요원 배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문화요원이란 고장 향토문화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지방문화 예술과의 연계작업에 대한 연구와 창작 등에도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촉매 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인원을 말한다. 현재의 도나 시·군 문화공보실은 유동적인 행정공무원이 자리를 맡아 있고 별정직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아래 조정업무나 문화재의 현황과악이나 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인 연구, 전문인의 양성,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른바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지방문화 예술의 향토문화적 특성은 더욱 세련화될 것이 소망된다. 대체로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그 명목만을 내세우다보니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또 향토의 특성을 따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서둘러 나며, 지방의 ‘지방적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초가지붕이 있어야 알맞은 곳에 시멘트 기와지붕이 들어와 있고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펼쳐진다는 문화예술 행사란 기껏해야 국적불명의 시민 위안공연, 가요 경연대회, 노래자랑 등이 있을 정도로 손뼉을 수 있을 뿐이다. 관광개발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방주민이 향토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생계와 직결시키면서 꽤

17) 이 제주도 정신의 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 용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적한 삶을 누려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향토야시장이라는 것이 과연 제주도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 공간인가 하면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비관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끝으로 거듭 지적되는 얘기지만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향토문화의 내용을 갈고 다듬는 작업은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관 주도는 향토주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이 아닌 전시위주의 행사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세속화된 축제를 더욱 세속화시켜 결국 향토축제를 현대 오락산업의 시너로 타락시키는 사례 등을 지도·감독하는 등의 지원행정은 관의 임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 내용의 향토문화권의 특성을 찾고 보존하는 일은 주민들과 지역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랑스럽고 즐겁고 친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찾아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三. 結 論

이상의 제주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활성화 방안의 골격을 크게 1) 지방문화 예술의 활동 공간문제 2) 지방문화 예술의 주체문제 3) 지방문화 예술의 재정문제 4) 문화예술 단체 육성문제 5) 지방문화 예술의 특이성 문제로 잡았다. 이 문제들을 정리·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문화 예술의 활동공간 문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대한 예술행정적 배려가 시급하다. 특히 건립 추진중인 제주도 종합문화회관 등의 운용에 있어 다목적 기능을 위한 공간배려가 요망되며 기타의 관공서 건물행정 등과 구분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독자성 및 독특성을 위한 운용이 요망된다.

아울러 특정의 공간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연회공간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일부의 행사로 전락되고 있는 한라문화제 같은 경우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연회공간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둘째, 지방문화 예술의 주체문제

지방자치화의 추세에 따라 예술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민간주도의 예술지방분권화 문제에서 가장 요망되는 사항은 소수의 그룹에 의한 행정절차보다는 지방민들의 의식공유가 선결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지방문화 예술의 재정문제

정부의 재정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제주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후원회 조직 등이 바람직스런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회관의 임대, 순회공연의 적극적 위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문화 예술에의 참관 유도, 복권 발행 등등의 다양한 전략이 내부적으로 요구된다.

네째,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문제

전문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예술인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아마츄어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펴으로써 지방문화 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꾀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 단체의 육성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배려의 적극성이 구성원에 대해 전개되기를 요망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문화 예술의 특이성 문제

지방문화 예술이 서울의 그 아류나 대치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제주도 특유의 향토 문화를 승계하는 작업이 되고 이것을 통해 지방민들의 의식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① 향토문화사에 대한 정리가 요망된다.
- ② 향토문화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요망된다.
- ③ 향토문화제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망된다.
- ④ 학교는 지방문화 예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지방문화 예술 이해를 위한 협력이 요망된다.
- ⑤ 향토문화에 대한 문화적 소양 교육이 요망된다.
- ⑥ 전문문화요원 양성 및 민속예능자의 육성이 요망된다.
- ⑦ 관광개발과 향토문화가 올바르게 접맥되어야 한다.
- ⑧ 민간주도의 방안이 요망된다.
- ⑨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키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⑩ 제주도 문화상의 상금을 현재의 배액 정도로 하고,〈제주도〉지의 격월간 발행이 요망된다.